데스크 시각

비엔날레에서 맥주를 마시다?

박 진 현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밤 8시. 뉴욕 맨해튼 5번가의 구겐하임 미술관은 밀려드는 인파로 뜨겁다.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어지는 '퍼스트 프라이데이 콘서트' 때문이다. 지난 2005년 첫선을 보인 이 콘서트는 디제잉, 록, 재즈, 와인, 그림이 함께 어우러져 '미술관=전시장'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렸다.

런던의 사우스 켄싱턴에 자리한 빅토리아 & 앨버트 미술관도 런더너들 사이에 '불금' 이벤트로 유명하다. 5000여 전의 전 세계 장식예술품 수백만 점을 소장한 고미술의 보고(寶庫)이지만 마케팅만큼은 '트렌디'(trendy)하다. 젊은 세대를 겨냥한 '프라이데이 레이트'(Friday Late)는 대표적인 케이스. 저녁 6시에 문을 닫는 평일과 달리 매주 금요일에는 밤 10시까지 미술관의 가든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힙합과 재즈, 와인과 맥주를 즐기는 '문화 난장'이 펼쳐진다.

최근 반환점을 돈 2016 부산비엔날레(9월3일~11월30일)도 이들 미술관과 궤를 같이한다. 올해 국내 비엔날레에선 처음으로 전시장에 시민들과 '먹고 마시는' 핫 플레이스를 들여 놓았기 때문이다. 다름 아닌 커피 체인점과 맥주바(bar). 일각에선 '전시장에 무슨 맥주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오픈과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와인·재즈 즐기는 '금요콘서트'

개막 44일째를 기준으로 부산비엔날레 재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 대회(16만 명)보다 14%가량 늘어난 18만3000여 명이 다녀갔다. 지난 2008년까지 와이어 생산지였던 옛 고려제강의 폐공장을 리모델링해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한 'F 1963'의 역할이 컸다. 이 공장의 창립 연도인 1963년을 따서 'F1963'으로 이름 붙여진 공간은 조병수 건축가의 설계로 3000여 평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핫'한 전시장으로 변신했다.

산업현장의 역동성과 역사를 간직한 전시장은 미음(ㅁ) 모양이 세 겹으로 에워싼 독특한 구조다. 가장 안쪽의 테니스 코트 크기 중앙마당은 양끝으로 계단식 좌석과 무대를 마련해 공연장으로 활용했다. 두 번째에는 도서관, 교육실, 커피체인점 '테라로사'와 체코 맥주바를 '입점' 시켰다. 그리고 마지막 ㅁ 자는 비엔날레 전시장으로 꾸몄다.

부산비엔날레가 신성한(?) 전시장에 커피 전문점과 맥주바를 들인 이유는 단 하나, 20~30대 젊은 세대와의 소통 때문이었다. 문화계의 트렌드 리더인 젊은 층이 커피나 맥주를 마시듯 부담 없이 현대미술을 '즐기도록' 고정관념을 깬 것이다. 그 때문일까. 산업 폐자재를 그대로 살린 커피 전문점과 맥주바의 독특한 아우라는 신세대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해' 주말 평균 1000여 명이 찾는 대히트를 쳤다. 커피 한잔을 주문하기 위해 2시간 이상 줄지어 기다리는 진풍경까지 연출했다.

게다가 이들 가운데 70%가량은 커피나 맥주를 마신 후에 비엔날레로 동선을 옮기는 '시너지 효과'로 이어졌다. 하석원 부산재단비엔날레 사무처장은 "비엔날레가 열리지 않는 비시즌 기간에도 커피점과 맥주바를 운영해 지역민들과 호흡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광주비엔날레, 통하였느냐?

'제8기후대,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주제로 개막한 2016 광주비엔날레(9월2일~11월6일)가 폐막을 앞두고 있다. 재단 측에 따르면 지난 4일 중간 점검 결과 지난 대회보다 2배나 늘어난 11만8000여 명이 비엔날레를 관람했다고 한다. 올해는 특히 지역 미술관과의 협업 등을 곁들인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는 게 재단의 분석이다.

이번 비엔날레는 사실 관람객 성적표로만 보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절반에 가까운 관람객이 초·중학생들의 단체관람인 데다 20~30대 젊은 층의 발길을 붙잡는 소통의 장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엔날레 홈페이지에 올라온 관람 후기들을 보면 '밋밋하다'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이벤트가 없다' 등의 글이 많다.

올해 비엔날레는 2014년 '세월 오월' 파동으로 혹독한 성년식을 치른 이후 처음 열린 행사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았다. 재단은 당시 혁신 방안으로 제시된 차별화된 마케팅, 지역민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비시즌 기간의 소통 등을 실천하겠다고 했지만 변화의 흔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연중 시민들과 교감하는 창구(窓口) 부재는 아쉬운 대목이다.

이제 미술관이나 비엔날레가 예술품만 보여 주는 '갤러리'이던 시대는 지났다. 근래 국내외 유명 미술관이나 비엔날레들이 시민들의 일상과 연계한 마케팅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예술의 가치를 높이되 전시장의 문턱을 낮추는 것. 그래서 말인데, 지금 광주비엔날레에 필요한 건 이런 발상의 전환이 아닐까.

/jhpark@kwangju.co.kr

은펜칼럼

가을을 보내며

김 창 균
광주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시절이 심란해선지 계절조차 가을답지 못하다. 봄·여름의 모든 것들이 가을의 결실을 대비했기에 오롯한 사색을 위한 따스한 햇살 한 조각, 삽상한 바람 한 올이 아쉬운 시간이다. 그런데 세간의 어지러움에 멍든 가슴들이 도처에 산재해선지 유난히도 우수(雨水)에 젖은 가을을 보내며, 사막에 선 어린 왕자의 심정으로 주위를 돌아본다.

정성을 다해 돌보던 장미와 다툰 뒤 속상한 마음을 달래려고 떠난 여행, 결국 지구에 이르렀지만 도착한 곳은 아무도 없는 사막이었다. 사막에서 우연히 만난 뱀에게 '이곳은 무척 쓸쓸하다'고 심경을 토로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도 외롭기는 마찬가지'란다. 사실 어린 왕자가 도착한 곳이 황량한 사막이라기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장미가 5000송이나 피어 있는 정원이 있고, 특급 열차가 다니는 역도 있고, 도르래와 물통이 있는 샘도 있으니 말이다.

뱀과 헤어진 어린 왕자는 장미 정원에 이르러, 마침내 자신의 별에다 두고 온 꽃이 수많은 장미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에 울음을 터트리고 만다. 이때 나타난 여우로부터 '길들이는 법', 즉 '관계를 맺는(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길들인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한 사람이 된다는 것, 즉 어떤 대상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깨우침이다.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를 어느 조종사의 독백으로 시작한다. 어렸을 때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그렸는데, 어른들이 모자로만 보아서 화가의 꿈을 포기하고 조종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는 비행기 고장으로 불시착한 사막에서 어린 시절 그림을 제대로 이해해 준 어린 왕자를 만나고서야 진실한 만남을 시작하게 된다. 장미와 헤어진 어린 왕자도 지금껏 권위적인 임금, 허영심 많은 남자, 주정뱅이 등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만 만났을 뿐이었다.

'사랑'은 사량(思量· 생각의 양)에서 나왔다는 말이 있다. 사막 같은 공간에서 타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장미를 소중하게 만드는 것은 장미를 위해 정성들인 시간'임을 깨달음으로써 사막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떤 것의 소중함은 오직 그것과 맺고 있는 관계에 의해서 생겨나기에, 사랑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이루게 된다.

신영복 선생도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서 "사람은 그림처럼 벽에 걸어 놓고 바라볼 수 있는 정적 평면(靜的平面)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비로소 발휘되는 가능성의 총체"라고 했다. '한편이 되어 백지 한 장이라도 맞들어 보고, 반대편이 되어 헐고 뜯고 싸워보지 않고서 그 사람을 알려고 하는 것은 흡사 냄새를 만지려 하고, 바람을 동이려 드는 것과 같은 헛된 노력'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 개의 나무 의자든, 높은 정신적 가치든 무엇을 공유한다는 것은 같은 창문 앞에 서는 공감을 의미하며,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운명의 연대'라고 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옆 사람을 단지 36.5℃의 뜨거운 열 덩어리로만 느끼고 증오하게 만드는 여름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일이다.

보아뱀 그림을 몰라주는 사람들 앞에서 조종사는 원시림이나 별에 대해서는 이야기 못하고,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 카드놀이나 골프, 정치와 넥타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래야 '어른'들은 재치 있는 사람을 만났다며 흡족해 했다. 진정한 사랑이나 배려 없이 자기 욕망으로만 타인을 바라보는 현실을 비판하여,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인간들의 세계에는 우정을 파는 상점이 없다'고 말했다.

성큼 다가선 겨울 앞에서 이 가을을 공허함과 조락(凋落)으로 마무리하지 않으려면, 어린 왕자와 함께 관계 맺음의 의미를 돌이켜 보는 것이 좋겠다. 장미를 떠나온 것을 후회하는 어린 왕자에게 여우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길들인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장미에게 당신은 책임이 있어요."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 고

우리사회는 노인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

이 종 환
광주시지방공무원교육원장

추위로 가을이 무색한 '가을'이다. 형형색색 단풍을 한껏 기대하는 이들은 단풍만큼 아름다운 아웃도어를 갖춰 입고 산으로 들로 나선다. 푸르름으로 무장하고 나무를 키워낸 무성한 나뭇잎들은 이내 말라 낙엽이 된다. 낙엽은 쓸쓸하다. 그러면서 상기시켜준다. 우리 주변에도 쓸쓸하고 돌봄이 필요한 누군가 있다는 것을.

지난 10월 17일은 빈곤퇴치의 날이었다. 이날은 1992년 빈곤·기아 근절과 국제적 관심 촉구를 위하여 국제연합에 의해 제정되었다 한다. 사실 빈곤, 굶주림 같은 단어는 그리 친숙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세계의 부러움을 받을 정도로 경제개발에 성공하면서 빈곤과 문맹을 벗어났기에 더욱 그렇다.

그런데 상대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입장이 달라지는 것 같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최근 보도에 인용된 OECD의 '한눈에 보는 사회 2016'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대별로 분류했을 때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은 노인층에 유난히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 인구 비율)은 14.4%로 OECD 평균 11.4%보다 소폭 높다. 하지만 65세 인구는 전체의 절반 가량인 48.8%가 빈곤선 아래에 있다. 이는 OECD 평균 12.1%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우리나라 다음으로 노인 빈곤율이 높은 호주(25.7%)와 멕시코(25.6%)에 비해서도 2배 수준이다. 국내 노인 빈곤율은 2012년부터 3년 연속 OECD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은 누구인가?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장본인들이다. 일제 식민시대에 태어나 4·19, 5·16 격동의 시대를 살면서 잘 살아보자는 일념 하나로 고통을 감내해 오신 분들이다.

혹은 먹는 입을 줄이려고 혹은 동생들의 학업을 위해 기꺼이 대처로 나가고 공장으로 들어갔다. 눈부신 경제성장은 이들의 값싼 노동력과 희생 위에 이루어졌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이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 하나의 가정에서 출발해 사회 전체적으로.

1987년 10월 17일 프랑스 파리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10만명의 인파가 치른 '절대빈곤 퇴치운동 기념비' 개막행사가 '빈곤퇴치의 날'의 시초로 꼽힌다고 한다. 기념비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 '가난이 있는 곳에 인권침해가 있다. 인권보호는 우리의 의무다.'

광주는 인권도시다. 부정한 사회, 부당한 억압에 맞서 분연히 일어났던 광주는 이제 인간답게 사는 도시를 지향한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소외받는 이웃이 없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에 인색하지 않다. 지난 여름 노인복지 시설에는 에어컨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단 한 사람도 홀로 지내지 않도록, 홀로 떠나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의무이다. 그렇지만, 이런일들을 아낌없이 추진하기에 재정상황은 만만하지 않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한국 노인층이 가난한 삶을 사는 이유에 대해 OECD는 '미약한 복지 안전망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4년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10.4%로 OECD 평균인 21.0%의 절반 수준으로, 멕시코(7.6%)에 이어 끝에서 두번째다. 특히 연금 지출이 GDP 대비 2.6%로 OECD 평균 8.0%의 3분의1도 되지 않는다. OECD는 "성숙되지 않은 한국의 연금제도가 노인들의 높은 빈곤율로 연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우리사회 노인들은 일을 한다. 복지의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벌어 메우기 위해서다. 가족이 함께 사는 풍습도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홀로 사는 노인이 많아졌다. 재산은 물려줬는데 자식이 부양을 소홀히 한다고 고소를 하는 일도 생겨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자신의 삶을 돈벌이에 의존해야 하는 노년은? 그것도 이른 새벽, 늦은 밤 종이박스를 주워야 한다면? 보는 이를 안타깝게 한다.

우리세대의 부족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부모세대가 물려준 풍요는 어느 순간 보내버리고 다음세대에게 인구절벽, 고용절벽을 물려주고 있다. 양극화 심화, 20대80 혹은 10대90, 상위계층으로 가는 사다리가 있냐 혹은 없냐라는 말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가을이다. 인생의 황혼을 보내는 부모세대에게 사회적 관심과 존중을, 진심어린 정책적 배려를 했으면 한다. "고생했더니 보람 있구나" 말할 수 있게 해드렸으면 한다.

社 說

박근혜 대통령 직접 조사받고 용서 구해야

최순실 씨 국정 농단 사태로 국민들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참담함에 빠졌다. 대통령은 최 씨를 비호하며 국정 운영 시스템을 유린했고 참모진은 이를 방관하거나 동조했다. 집권 여당은 정권의 일탈을 견제하지 못한 채 청와대 눈치 보기에만 급급했다.

정부 부처는 예산 지원 등 최 씨의 편의를 봐주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대기업은 최 씨가 주도하는 재단에 앞다투어 돈을 갖다 바쳤고 대학은 최 씨의 딸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는 일그러진 정권의 민낯에 국민은 '이게 나라냐'고 묻고 있다. 어떻게 국가가 이렇게 될 수 있느냐며 진실을 밝히라고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으며 시국선언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국정 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뒷북 수사에 나선 검찰이 최 씨의 귀국에도 즉각 소환을 하지 않고 하루의 시간을 주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각종 증거 인멸 정황이 나타나면서 야권에서는 국정농단 사태를 덮으려는 거대한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앞으로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 다시 사회적 갈등이 폭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최 씨와 관련 인사들의 구속 및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 개편 수순으로는 국정 운영의 동력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대한민국의 근간과 국민의 자존심이 무너지면서 콘크리트처럼 견고했던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마저 한자릿수로 떨어졌다.

이번 국정 농단 파문의 발단과 본질은 최태민 일가와의 인연을 국정 운영에까지 끌어들인 박근혜 대통령이다. 진실 규명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자진해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스스로 고백하고 진실 규명의 문을 열어야 한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각오를 해야 한다. 진실은 고통스럽지만 위기의 대한민국을 거듭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국제공항에 타이어 하나 없어 결항이라니

시설에 비해 이용객이 적어 '반쪽 공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무안 국제공항이 '무늬만 국제공항'이라는 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안개만 조금 끼어도 이·착륙 예정이던 항공기가 결항되기 일쑤였는데 이번에는 교체할 타이어가 없어 운항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고는 지난 31일에 일어났다. 이날 무안공항을 출발, 상해 푸둥공항으로 가려던 동방항공 여객기가 타이어 결함으로 5시간가량 출발이 지연되다 결국 결항된 것이다. 항공사는 여객기 타이어에 나사못이 박혀 바람이 빠진 사실을 확인하고 정비 후 출발하려 했으나 바꿔 끼울 타이어를 확보하지 못해 결국 운항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급히 부산(김해공항)으로 알아봤으나 동일한 타이어가 없었다고 한다.

이번 결항의 일차적 원인은 일단 동방항공 측의 허술한 정비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나 등 일부 항공사는 광주공항이나 무안공항에 정비시설과 인력을 배치하지만 동방항공은 부품 조달은 부산이나 인천공항에 있는 자체 정비시설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행기 타이어가 펑크나 대체할 타이어를 확보하지 못해 여객기가 결항된 것은 명색이 국제공항이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한다. 공항과 항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정부가 운항 요건을 엄격히 관리했다면 항공사의 허술한 운항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날씨가 조금만 나빠도 운항을 할 수 없고, 갑작스러운 돌발상황이 발생해도 운항을 할 수 없다면 국제공항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려는 관광객과 관광업체, 민간 항공사 측은 발길을 돌릴 것이다. 관계 당국은 하루빨리 공항 시설을 보강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 무안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노트북 게이트'

최순실의 국정 농단 의혹은 세 가지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800억 원의 돈을 강탈하고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의 기밀문건을 사전에 열람한 것 그리고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이다.

이 가운데 대통령의 하야를 부를 정도로 국민의 공분을 산 것은 기밀문건 사전 열람이다. 최 씨가 연설문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을 뒤에서 마음대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최순실 파문을 게이트로 이끈 것은 한 언론사가 확보한 태블릿 PC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노트북을 열어 보니 청와대에서 유출된 연설문이 수정돼 있었고 이것이 실제 대통령 연설에 그대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이 경악했다.

비슷한 일이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무난히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예상됐던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메일 스캔들'에 막혀 당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메일 스캔들은 힐러리가 국무장관 시절 사설 이메일로 국가기밀을 주고받은 것으로, FBI가 재수사에 나서면서 대선 정국이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메일 스캔들이 불거진 것은 힐러리의 측근인 후마 에버딘이란 여성의 노트북을 FBI가 확보하면서부터다. 에버딘이 집에서 노트북으로 힐러리와 이메일을 주고받다가 FBI 수사망에 걸린 것이다.

에버딘은 '힐러리의 수양 딸'로 불릴 만큼 신임이 두텁다. 힐러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좌하면서 의상 선택을 조언할 정도다. 힐러리에게 이메일을 보내 "오늘은 어두운 색을 고르세요. 파란색이나 짙은 녹색 정장이 좋겠네요"라고 한 적도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초기 힐러리 측근 중 상당수가 눈밖에 났지만 에버딘이 20년 동안 힐러리 곁을 지킨 것엔 능력 못지않게 다른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둘 간의 심리적 교류도 한몫했다고 보도했다.

에버딘을 보면서 최순실을 떠올린다. 최순실 게이트나 이메일 게이트나 노트북을 통해 국가기밀이 샜다는 점에서 '노트북 게이트'로 부를 만하다. '문고리 권력의 노트북'이 두 나라에서 정국을 흔들고 있다. 대선을 1주일 앞둔 시점에서 에버딘의 노트북이 힐러리의 백악관행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다. /장필수 정치부 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